제9강: 여러 가지 범주의 어휘 개념 Ⅱ

◆ 1교시: 리얼리티(rality)와 가시성(visibility)

▲ gnosis와 theoria의 개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알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는 대표를 말할 때 부정법을 쓰잖아요. 희랍어를 대표했을 적에는 1인칭 단수로 씁니다. 원형이 아니라 1인칭입니다. I know입니다.

라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칭 단수를 뜻하는 겁니다. 암튼 이 기그노시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형이 뭡니까. gnosis 지요. gnosis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요.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창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가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니죠. 예수가 기독교를 만들어서 교주가 되어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죠.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반세기 정도가 지나서 예수의 전설, 이야기를 갖고 만든 것이 기독교이지요. 예수는 그저 있었을 뿐인데 예수의 전해 내려오는 얘기, mythos를 제료로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 기독교가 하나일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기독교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기독교가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진짜 기독교로 하자'고 정한 거죠. orthodox라는 말이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정통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때 이단으로 몰렸지만 사실 영향이 큰 것이 영지주의(齡知主義)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꾸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는데요. 그노시스파는 성격이 굉장히 뭔가 어둡고 잔혹하고 기괴합니다. 종말론적이고. 칸딘스키(Kandinsky, 1866-1944)나 몬드리안(Mondriaan, 1872-1944 이 바로 이 그노시스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추상화를 했느냐,

그것 때문만이 아니겠지만 그노시스파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주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타락해서 우리가 육신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신의 세계로 가려면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이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휴거 있었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뭡니까. 〈신세기 에반게리온〉.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반게리온 극장판 보면 사람들이 다

www.artnstudy.com

녹잖아요. 거대한 십자가가 돼서요. 그게 바로 그노시스 학파입니다.

칸딘스키 같은 사람의 경우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지요.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드디어 모든 생명이 사라지고 신세기(新世紀)가 도래하는 구나.

그것도 abstract, 추상화지요. meta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영혼만 놔두는 거죠. 이 그노시스파라는 파가 서양 문화사에서 갖는 위상이 적지 않아요. 지금도 있긴 하는데 약간 어둡게 있지요. 여전히 이단이죠.

그 다음에 theoria. theoria는 원래 뜻이 뭐냐면 경기장에 가서 보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보는 것. 그러니까 관조(觀照)죠. contemplation.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 순수 인식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theory. 이론(理論)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관련어가 historia. 우리가 지금 역사라고 부르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목격이죠. 본 것을 적어놓은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historia도 상당히 중요하고.

▲ visibility와 invisibility의 문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8쪽입니다. 사유하다라는 말. noesis 는 사고작용. 희랍어에서 sis 들어가면 다 작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과학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옛날엔 많이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오네요.

자연과학적 개념은 아니지만 Genesis도 그런 예지요. 특히 어떤 자연과학에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화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sis. 전부 다 무슨 작용. 우리말로 하면 화(化)죠.

noesis는 사유작용이고 그것이 포착한 대상이 noema이지요. 그리고 그 능력이 nous지요. psyche의 능력 중에서 인간 고유의 능력이 logos이지요. psyche는 다른 동물도 있으니까요. 이건 원래 영혼보다는 생명에 가깝죠.

그 다음에 logos중에서도 특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이성을 nous라고 합니다. noesis가 라틴어로는 cogitatio이고요. noema가 cogitatum이지요. 희랍어의 sis는 라틴어의 tio죠. 이것이 현대어로 가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tion. 다 화(化), 작용이라는 개념이죠.

concept은 개념이고 conception은 개념을 만드는 것, 개념화, 개념작용이지요. 구분해서 번역합니다. 그 다음 tum은 명사형 과거분사 어미이지요. 어떻게 된 것. 이런 것을 외워 놓는 게 좋죠. 서양책 읽다 보면 자주 나오죠. noesis는 현대에 와서 후설에 의해서 많이 유명해졌죠. 현상학에서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phroneo. 이것은 나중에 phronesis로 유

www.artnstudy.com

명하죠. 보통 실천적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번역가에 따라서는 prudence, 신중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phronesis라는 말의 동사형이 phroneo지요.

어쨌든 168쪽. 중요한 것은 희랍 사람들은 시각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요. 문명사나 개념사를 쭉 꿰는 개념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visible과 invisible입니다. 문명사를 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꼭 빼놓을 수 없는 것, 얘기가 재밌고 매력적인 것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visible과 invisible으로 보는 겁니다. 인류 문명사를.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그리스 문명사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 문화에서 철학은 학문이지요. 반드시 지금의 의미의 철학이 아니라 학문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 원인 중의 하나는 '안다는 것'은 시각을 동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직접적인 시각을 넘어서 플라톤적인 본질로 가지만.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 안다는 것은 반드시 visibility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뭘 물리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visibility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은 뭐가 가짜라는 말입니까.

신화나 종교 같은 것들이지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 그런 것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과거의 그리스의 신화나 종교나 mythos. 요새로 말하면 넓은 의미의 문학은 visibility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제우스를 봤냐는 겁니다. 제우스를 보지도 않았는데 제우스가 뭘 어떻게 했다든가, 제우스에게 절을 하는 등의 종교적 행위들, 제우스의 일화들. 이런 이야기들은 다 허무맹랑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visibility의 세계로 visibility의 근거를 강조하면서 서양에서 철학, 학문이 등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아까 그 얘기 했죠. 히브리 문명은 visibility가 아니다. 신이 안 보이니까요. 비가시성의 문명이죠. 도식적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서양 문명이라는 것이 그리스에서 visibility가 강조되다가 히브리즘이 들어오고 기독교 문명으로 가면서 visibility로 가게 되죠.

적어도 이 지성사 계통은요. 일반 사람들의 삶이야 다르니까 그것을 다 묶어서 얘기할 순 없고요. 그래서 중세 질서가 무너지고 modernity가 등장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visibility죠.

서양의 중세문명, 기독교 문명이 쇠하고 modernity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계기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가시성이지요. visibility.

그러다가 이 포스트모던의 세계가 또 하나의 invisibility의 문명이 아닌가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건 제 해석이지만요. 물론 다 섞여 있지만 근대에 비하면 또 다른 의미의

www.artnstudy.com

invisibility의 문명이 아닌가 싶어요.

▲ reality란 무엇인가

요새 청소년들을 보세요. 아침에 읽어나서 판타지 소설 읽죠. 존재하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인터넷 게임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이죠. 이것도 가짜의 세계잖아요.

기린 장난감을 갖고 논다거나. 기린은 실제로 본 적이 없죠. 기린의 실체는 동물원에서나 가끔 봤겠죠. 어쨌든 기린의 시뮬라르크와 노는 거죠. 또 집에 와서 텔레비전 보죠.

가끔 아내가 드라마 보고 있으면 저도 보는 데요. 〈왕과 나〉가 있죠. 이건 분명 조선시대를 그린 드라마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현대의 멜로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 대사, 카메라 앵글까지.

옛날 옷만 입었을 뿐이지 현대의 청춘 남녀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역사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지요. 심한 경우 평생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역사책을 읽은 적이 없으면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맨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조선의 가짜 세상에서 사는 거죠. 물론 그 드라마도 최소한의 사실, 연대는 맞췄겠지요. 의상도 고증을 거치고요. 역사도 물론 백퍼센트 진실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visibility의 자료를 갖고 성실하게 만든 역사책은 아예 관심 밖이고 계속 사극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가상, imagnation의 세계에 사는 거죠. 리얼리티라고 해보았자 사소한 공산품이나 사람들뿐이지 다 imagnation이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새로운 invisibility의 세상이 아닌가. 얼마 전만 해도, 5-10년 전만 해도 사극을 만들면 최소한의 고증을 해야 한다는 의식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사학자들과 극작가들이 논쟁하고 싸우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으면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딱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배용준이 나오는 사극이었어요. 이게 무슨 언제 얘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에요.

저것이 어느 나라인지 언제인지 어디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찌 보면 오늘날의 이 시대라는 것은 modernity라는 것이 증발된 겁니다. 리얼리티에 근거해야 한다는 일말의 의무감조차 증발해버린 거죠. 완전한 invisibility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빼고 누가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www.artnstudy.com

reality에 충실한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겠습니까.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홍규 선생이 하는 얘기는 시대와 대비되는 얘기죠. 저도 현대의 세례를 받아서인지 visibility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visibility라는 것 자체가 복잡한 문제고, imagnation의 문제도 어떻게 가게 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아무튼 박홍규 선생은 고전적인 객관성, objectivity, reality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죠. 그렇지 않다면 소설 쓴 것이란 얘기죠.

그 다음엔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박홍규라는 이분의 사상을 단적으로 규정해주는 말 중의 하나가 pragma지요. 사물, 대상, object.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쓰지 않고 reality에 가기 위해서는 pragma와 닿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든 대상이든 객관성이든간에. 이것이 라틴어로 가면 res, 사물(事物)이 되는 거죠.

또는 약간 이론적인 말로 하면 data. res라는 말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reality입니다. 원래 문제되는 것이 이것이죠. 과학이든 철학이든 이 reality라는 것을 붙들고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는 reality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역설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화 자체가 가짜인데. 그 자체가 가짜인데요. 영화가 리얼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아주 잘 한 거죠.

이 reality라는 말이 복잡해요. 오늘날엔 그 의미가 아주 중층적이지요. 고전적인 의미의 reality도 사실은 이런 객관성을 중시하는 것부터 현실을 중시하는 것까지 다양하거든요.

오늘날은 더 복잡하죠. real하다는 말. reality하다고 얘기해도 이것은 real이 아니잖아요. 그저 종이에 그려진 물감일 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영화도 마찬가지죠. 칼에 찔리는 폭력신이 아주 그럴 듯해요. 그걸 보고 우린 리얼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고도의 수준으로 가짜를 만드는 것이 영화의 reality인 거죠. 아주 복잡한 말입니다. 의미의 중층이 첩첩히 쌓인 말입니다.

ontology 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 reality와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rationalism의 어원도 여기서 나온 거지요.

그 다음에 data는 원래 datum의 복수형이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라틴어는 보통 과거분사인데요. 주어진 것의 복수가 data입니다. 어찌 보면 이분의 생각과 인식론, 학문의 태도, 철학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pragma입니다.

www.artnstudy.com

어원적으로 말하면 pragma라는 말은 행하다, 실천하다의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것의 현재 완료 수동형이지요. 사실은 fact지요. 그 fact의 라틴어가 factum입니다. 그 뒤에 um 붙여서. 그 factum이 바로 이 pragma입니다.

행해진 것, 사실. 그 다음에 actuality의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얘기를 좀 정리하면 sophia, techne, epistme. 이 세 가지의 구분. 사실 구분이 좀 애매하죠. 암튼 그 구분을 해보았고. 안다라는 말에 대한 용어들, 중요한 개념들, gnosis, theoria, noesis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안다라는 말은 희랍 문명사에서 보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시각중심주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다는 말의 층위. 무엇을 보느냐. 본다는 말의 의미가 점점 더 심화되어 왔다는 거죠. 추상화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한 얘기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visibility의 문제. 인식론에서든 문명사든 예술이든. 어디서나 중요한 얘기고. 박홍규 선생이 얘기하는 강한 형태의 경험주의죠. 경험이란 말이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pragma를 강조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얘기 있죠. itself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인식한다는 것은 주관에 물들지 않은 자체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얘기. 그것도 이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뒤에서 다시 나오죠. 그때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 2교시: 존재론에 대하여

▲ 연속성에 관한 질문들

172쪽부터 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정교하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래야만 이것을 data 삼아서 탐구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각각 하나하나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상호간에 간섭하면 안 된다.

사실 모든 것은 현실에서 상호간에 간섭하죠. 그것이 현실이죠. 모든 것이 상호간에 간섭하

www.artnstudy.com

는 측면에서 볼 때 세상은 하나죠. 하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얘기하고 이름 붙이고 인식해서 들어가려면 그것을 분리시켜 나누어야 합니다. 다양성으로요.

우리의 시각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관계적인 세계에서는 먼 것이 있고 가까운 것이 있다. 먼 것이 가까운 것에 의해 가려져 있다. 간섭하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세계에서 예컨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죠.

In fact. 사실상으로는 같단 말이죠. 똑같은 크기의 책이지만 멀리서 보면 작아지죠. 내 주관이 간섭함으로써 사물을 자체로 못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항상 고전적인 철학에서 중요한 건 in itself, 그 자체와 for us, 우리에게. 이 구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in itself 무엇이고. for us, 우리에게 무엇인지. 이 문제.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는 for us도 아니지요. for me지요.

그래서 간섭하는 요인을 빼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물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묘한 것이죠. 주관을 빼라. 주관을 빼면 사물이 보인다.

그렇지만 itself를 보는 것도 주관이잖아요. itself를 다른 사람이 보느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것도 내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 가냐 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감성과 이성이 다르다는 거죠.

감성으로 보면 좁아지지만 이성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감성에 묻히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사물을 itself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믿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서양의 합리주의, rationalism입니다.

간섭하는 것을 빼라, 그 상태를 '자체'라고 합니다. 희랍철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itself의 철학입니다. itself의 철학. 재밌는 것은 현대로 올수록, 오히려 for us를 중시합니다.

현상학, 실용주의, 인식론이 다 그렇죠. 헤겔과 맑스의 변증법(辨證法)도 상당 부분 그런 측면을 갖고 있지요. 하여튼 재밌는 현상인데요.

자체의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사물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상호간에 간섭하지 않는다. itself들로 딱딱 끊어진다는 거죠. itself가 아닌 맥락에서는 모든 것이 간섭하고 관계맺고 타자화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딱딱 끊었을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적인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일성에서 출발한다. 이 자기 동일성의 극한치가 자체성이다.

용어의 사용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자기 동일성은 인식하는 주체, 사람의

www.artnstudy.com

자기 동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의 자기 동일성이 객체와 연결되어 있는 극한치, 주체가 끝나는 limit에서 자체성이 주어지는 거죠.

자기 동일성이 주어지면 그것의 내용은 항상 바로 그것이며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자기 동일성이 주체의 동일성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말을 다르게 한 것이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헷갈리는데요.

경험적인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self identity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기 동일성의 극한치가 자체성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동일성의 극한치가 자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본질주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철수를 보면 철수인지 알잖아요. 그것이 self identity인데요. recognize하는 거죠. 그 사물이 동일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re cognize 하는 거죠.

그런 self identity의 극한치, 가장 근본적인 극한치가 자체라는 거죠.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말한 간섭하는 연속성이 끊어진 한계, 다시 말하면 존재와 無가 부딪히는 그 한계로 해석된다.

박홍규 선생 특유의 어려운 표현인데요. 간섭하는 연속성이 끊어지죠. 끊어진다는 것은 존재와 무가 맞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책이 움직이면요.

움직이는 여기서는 존재와 無가 구분이 안 되고 섞여 있는 거죠, 화살을 쏘면 움직이는 매순간이 뭡니까. 화살의 앞부분은 없는 순간이 있게 되고 없는 순간이 있게 되는 거죠. 반면 화살의 끝은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고 하게 되죠.

있음과 없음의 경계가 매순간 흐려지면서 얽혀가면서 생겨가는 것이 becoming입니다. 모든 생성은, 모든 becoming의 세계는 존재도 아니고 무도 아니지요. 존재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다른 것이 되가는 거죠,

또 없다고 말하는 순간 또 자꾸 뭔가 생겨나는 거죠. becoming의 세계는 존재와 무가 끊어지지 않고 섞이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생성에는 있음과 없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책의 끝점이 있다가 책이 이동하면 없어지죠. 반대로 갈 경우에는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존재와 무가 섞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없는 거죠.

딱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한다, 생성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항상

www.artnstudy.com

연속성을 함축하고 있고, 그 연속성 속에서 존재와 무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존재와 무의 경계가 매순간 바뀌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 생성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존재와 무가 갈라지는 겁니다.

▲ 존재론을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

생성이 어디에선가 끊어지고 존재와 무가 정확히 갈라지는 지점에서 있는 것을 있다는, 인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하나의 data로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 있고. 또 그 자기 동일성이 주어져야만 엄밀한 기술과 분류가 나오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의를 하려면 어떤 사물의 자기 동일성이 분명히 나와야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정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정의의 내용에 따라서 사물과 일체와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어떤 법칙을 논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런 얘기는 페미니즘의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적 identity라는 것이 생성의 과정에 있다는 말이 있죠. 이정우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성성이 75%고 여성성이 25%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줄고 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becoming이라고 합시다. becoming을 얘기할 적에는 항상 부정과 무(無)를 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남성이다라는 것은 남성은 있고 여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성이다는 것은 여성은 잇고 남성은 없는 것입니다.

즉 이다 아니다는 있다 없다의 문제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성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비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남서이라는 존재가 이다 아니다라는 이 여성의 부정, 無가 섞이면서 생성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고 남자는 백퍼센트 남자이기만 하고 여자는 백퍼센트 여자이기만 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존재와 無가 부딪히고 한군데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이겁니다.

남자가 볼 적에는 남자가 백퍼센트이고 여자는 無인 거지요. 그렇죠? 여자로 볼 적에는 여자는 백퍼센트 여자이고 남자는 無이죠. 존재와 無가 생성 속에서 섞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경계선을 이루면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아주 강한 본질주의는 백퍼센트 남자와 백퍼센트 여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생성론은 존재와 無가 계속 생성한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조

www.artnstudy.com

금 완화된 본질주의는 생성하긴 하는데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본질주의 논쟁에 들어가는 존재론적인 원리입니다.

선천적인 게 중요하다, 후천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선천 속에는 후천은 아예 없는 것이고, 후천 속에는 선천은 0%인 것니고, 이것은 존재가 명확히 갈라지는 것이고, 생성론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페미니즘이건 뭐이든 본질주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은 존재론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재론적 법칙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닌,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Man itself가 있고 woman itself가 있다는 생각이 바로 본질주의죠. 본질주의는 섞임과 생성이 간섭을 제외하고 어떤 것을 itself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론을 공부하는 것의 의미. 존재론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한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지식을 주지 못 합니다.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이 문제는 페미니즘도 그렇고 생물학적 결정론도 그렇고 후천설(後天說,) 선천설(先天說도) 그렇고, 성악설(性惡說) 성선설(性善說)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논하든지 간에 등장하는 근본적인 logi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을 공부합니다. 존재론을 공부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든지 연결시켜서 볼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담론의 테두리 안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존재론에 가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다시 practical한 철학으로 왔을 적에 practical한 철학을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른 것과 연관 지어서 보게 되고 그래서 practical을 더욱 잘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박홍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data 일반의 성격은 무엇이냐를 따져서 정의를 해야 하고. 정의된 data에 의해 성격이 성립하는 것을 따져야 하고. 그 다음에 data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철학이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따져야 하죠.

그런 다음 모든 data로 주어진 사물들의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원리를 찾아서 그것을 재결합해서 구체적인 사물 세계로 다시 내려오는 길을 밟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물과의 총

www.artnstudy.com

체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죠? 한 바퀴 도는 거죠. 가장 일상적인 현실에서 출발해서 존재론적 레벨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야 하죠. 존재론적 차원으로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를 않는다면 심오하고 추상적인 원리를 알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진리가 각각의 맥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존재론적 비전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근시안적으로 각각의 맥락 속에 갇히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사물과의 총체적인 연관성이 주어지면 sophia가 추구했던 행동의 세계로 다시 내려오고.

우리의 출발이 되었던 직접적인 감각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철학을 추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개입하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어떤 차원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what is X?" 라는 물음을, 섞여 있는 레벨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X는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설을 갖고 다시 내려와서 해보고.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다시 찾아가고. 그런 과정이죠.

175쪽을 보면요. sophia라는 것은 행동과 순수한 지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그 sophia가 머무느냐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sophia라는 것은 원형적이기 때문에 순수한 지식과 practical한 것을 딱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 다음 시간을 준비하며

다음 시간에는 이 광주 강연과 맥락이 닿는 앎의 개념입니다. 같은 책의 300쪽입니다. 앎의 개념도 저번에 했던 「철학이란 무엇인가」와 오늘 했던 광주 강연과 맥이 닿는 겁니다. 그런 글입니다.

이건 상당히 길지만, 우리가 이미 했던 얘기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뭐냐.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순수 사유란 무엇인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두 번째가 자연철학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희랍철학을 다루기 전에 검토해야 할 것을 다룬 두 논문이 있어요. 하나는 맨 처음 논문 모음집의 「희랍철학 소고」입니다. 1권은 이 사람의 논문을 모아 놓은 것이고요.

www.artnstudy.com

2권의 「희랍 철학의 이면」. 이 두 개가 말하자면 희랍철학 전반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개를 읽었고 다음 시간에 앎의 개념을 좀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희랍철학의 소고」와 「희랍철학의 이면」이 두 개의 글을 보겠습니다.

「희랍철학의 소고」는 1권에 있고 「희랍철학의 이면」은 2권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서론이 끝나고 자연철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www.artnstudy.com